

# “반갑다 프로야구” 내일부터 시범경기



‘화기애애’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오른쪽)등 투수들이 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밝은 표정으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광주서 LG와 첫 경기...김운동 첫 선발 출격

### 호랑이군단 선수명단 조정...본격 실전준비 체제로

미안한 표정의 감독과 웃으면서 돌아선 선수들이었다.

지난 3일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서 돌아 온 KIA 선수단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 5·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했다. 8일 시범경기 개막에 앞서 진행된 마지막 훈련 날, ‘호랑이 군단’은 몸집을 줄였다. 본격적인 실전체제로 접어들면서 시범경기와 2군 연습경기를 통해 고루 전력을 테스트 하기 위해 선수단 명단을 조정할 것이다.

통보를 받은 선수들이 먼저 감독실 문을 두드렸다. 노수광을 필두로 고영우, 황대인, 이인행이 김기태 감독에게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걸음을 했다.

김 감독은 “열심히 잘 한 것을 알고 있다. 지난 캠프에서 타율이 좋지 못했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라. 캠프에서의 일들은 다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연습경기에서 부담없이 잘하고 있어야”고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잠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선수들이 떠난 뒤 김 감독은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다. 이럴 때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다 실전에 기용할 수 없으니 연습경기를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고 지난 겨울을 함께했던 이들을 보내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시범경기가 아니라 2군 연습경기에서 출발을 하는 투수들이 감독실을 찾았다. 김병현과 함께 유창식, 김명찬, 임기준이 시범경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노리게 됐다.

아쉬움 속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는 이들과 달리 김 감독 앞에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선수들도 있다.

오랜 재활의 시간을 견딘 우완 강속구 광정철이 마침내 실전 무대에 서게 됐다. 대만 캠프에서 칼을 갈았던 외야수 이호신도 호출을 받았다. 그리고 대졸 루키인 사이드암 서덕원과 고졸 루키 우완 김현준도 시범경기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두 루키가 새로 합류하면서 “지금은 갈 수 없다”며 시범경기를 고대하던 포수 신범수와 외야수 이진영 등 4명의 ‘아기 호랑이’가 1군 무대를 위한 도전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

한편 KIA는 8일 LG를 상대로 챔피언스필드에서 시범경기 첫 경기를 치른다. 캠프 MVP 김운동이 선발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LG와의 2연전에 이어 SK, 넥센, NC,

## 시범경기

8	화	LG:KIA<광주>
9	수	LG:KIA<광주>
10	목	SK:KIA<광주>
11	금	SK:KIA<광주>
12	토	넥센:KIA<광주>
13	일	넥센:KIA<광주>
15	화	NC:KIA<광주>
16	수	NC:KIA<광주>
17	목	삼성:KIA<광주>
18	금	삼성:KIA<광주>
19	토	KIA:두산<잠실>
20	일	KIA:두산<잠실>
22	화	kt:KIA<광주>
23	수	kt:KIA<광주>
24	목	KIA:롯데<사직>
25	금	KIA:롯데<사직>
26	토	한화:KIA<광주>
27	일	한화:KIA<광주>

삼성과의 홈경기가 이어진다. 3월19·20일 잠실로 가 두산을 상대하는 KIA는 kt(홈), 롯데(원정), 한화(홈)를 차례로 만나 2016시즌 개막 엔트리를 완성한다.

시범경기에는 KBO 등록선수수는 물론 육성선수까지 모두 출장이 가능하다. 경기는 오후 1시 시작되며 연장전은 치러지지 않는다.

/김여울기자 wool@

# “이게 누구야”... ‘돌직구’ 광정철 컴백

## 팔꿈치·무릎 재활 5년만에 ‘독하게 마운드 지키겠다’

“2011년 6월3일 문학 경기였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광정철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마지막 경기가 언제였나?”는 질문에 광정철은 망설임 없이 대답을 했다. 4번의 볼이 오고 가는 동안에도 광정철은 겨울에 살고 있었다. 팔꿈치, 양쪽 무릎 등 계속된 수술과 재활로 시련의 시간을 보냈던 광정철이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서 2016년의 봄을 맞는다.

대만에서 진행된 퓨처스리그 캠프를 완주한 광정철은 시범경기 선수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부활을 위한 시동을 걸게 됐다. 6일 훈련 시간 틈틈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챔피언스필드 곳곳을 응시하던 광정철은 공식 훈련 시간이 끝난 뒤에도 마운드를 떠날 줄 몰랐다. 텅 빈 경기장에서 광정철의 새도우 피칭은 한참이나 계속됐다.

광정철은 “내가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선수도 아니고 부상도 많았기 때문에 더 독하게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해왔던 것이다”며 “생소한 곳이고, 1군 선수단도 생소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6월3일 문학 경기 다음날 뱃속각 때문에 팔을 펴지 못했다.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웃었다.

계속된 부상에 지난해 마운드를 포기할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광정철은 다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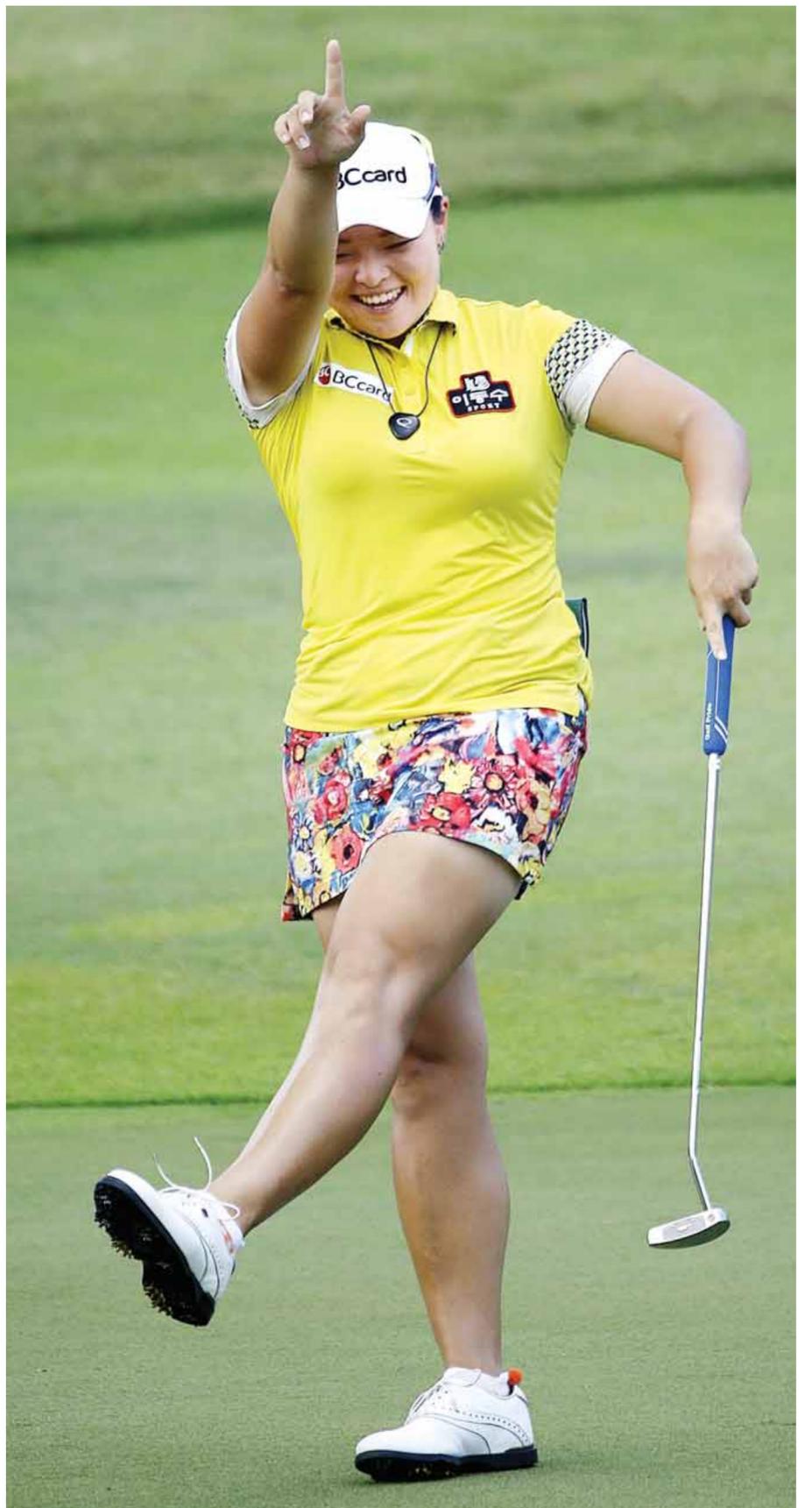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독하게 마운드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시범경기라는 첫 목표를 달성한 그는 올 시즌 1군에서의 경기 수, 2군에서의 성적은 물론 5년 뒤 계획까지 이미 다 짚어두었다.

광정철은 “시범경기라는 목표를 적을 때만 해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무리도, 스프링캠프도 갖았는데 그 목표를 이뤘다”며 “후회 없이 해보고 싶다. 나이를 먹었으니까, 많이 아팠으니까 그런 핑계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지금 야구라는 그림을 위해 스케치를 하고 색을 입히고 있는 중이다. 색이 잘 안 칠해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스케치를 선명하게 하면서 준비를 하겠다”며 “지난해 공이 좋아서 자만하다가 밸런스가 깨졌다. 유리한 볼카운트는 의미 없다. 아웃카운트가 완성되는 마지막 공을 던져야 내 역할이 끝나는 것이다. 자신감 있게 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댄스 세리머니 6일 싱가포르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마지막날 4라운드 18번홀에서 이글 퍼터로 우승을 확정해 장하나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벌써 2승... 시원했다! 장하나

## LPGA HSBC 챔피언십...펫람에 4타차 완승

장하나(24·비씨카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가장 먼저 시즌 2승을 달성하며 한국여자골프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장하는 6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 클럽 세라포 코스(파72·6600야드)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6개를 쓸어 담고 보기 1개를 곁들이는 팻람을 휘둘렀다.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적어낸 장하는 2위 폰아농 팻람(태국)을 4타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는 완승을 거뒀다. 우승 상금은 22만5천 달러.

장하는 2009년 신지애(28), 2015년 박인비(28·KB금융그룹)에 이어 이 대회 세 번째 한국인 우승자가 됐다.

지난달 코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장하는 싱가포르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려 이번 시즌 LPGA 투어 선수 중 가장 먼저 2승을 달성했다.

시즌 개막전 바하마 클래식에서 김효주(20·롯데)가 우승한 것을 포함, 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3승을 합작했다.

1타차 단독 선두로 시작한 장하는 전반에 3타를 줄이며 순항하다 11번홀(파4)에서 위기를 맞았다.

티샷을 오른쪽 러프로 보낸 장하는 두 번째 샷을 나무에 맞히는 실수를 저질렀다.

세 번째 샷을 레이업한 장하는 네 번째 샷을 1.5m에 붙인 뒤 보기 퍼트를 성공했다.

같은 조에서 경기한 팻람은 12번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한 뼘 거리에 붙여 탭인 버디를 잡아내 장하나를 견제했다.

하지만 장하나도 이 홀에서 2m 거리의 퍼트를 넣고 버디를 잡아내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 홀에서 나온 버디를 신호탄으로 장하는는 13번홀(파4)과 14번홀(파3)까지 3개홀 연속 버디를 낚아 팻람을 4타차로 멀찌감치 따돌렸다.

팻람은 16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3타차로 쫓아 왔지만 장하는는 2m 거리의 파 퍼트를 넣어 보기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유 있게 18번홀(파5)에 올라선 장하는는 워터 헤즈드를 옆에 둔 그린을 직접 노리는 과감한 샷으로 2온에 성공한 뒤 2m 거리의 이글퍼트를 넣어 우승을 자축했다.

/연합뉴스